# 경찰, 총격 사망 유족에 합의금 2,000만 달러 지급

▲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윌리엄 그린. 사진=WUSA9화면 캡처

경찰의 과도한 총격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경찰 관련 사망 사건 중 역대 최고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 WUSA9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사망한 윌리엄 그린(사망 당시 43세)의 유족 측과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프린스조지스카운티 템플힐스에서 한 흑인 남성이 여러차례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마이클 오웬은 용의자인 그린을 체포해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그리고 5~10분 후 경찰차에서 총격이 일어났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던 그린은 총 6발의 총탄을 맞아 숨졌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 오웬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측은 "비록 합의는 이뤘지만 그린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 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과 책임을 져야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유가족 측도 "그린이 어떻게 숨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리기 위해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할 것" 이라면서 "그린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금 액수는 경찰 관련 사망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올해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한 배경이 고액의 합의금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89세 피자 배달 할아버지의 눈물

고령에도 피자를 배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민 온정의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 뉴이 할아버지가 밸디즈를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사진=twitter.com(CNN)

지난 25일 CNN에 따르면 유타주 웨버카운티에서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틀린 뉴이(89)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 30시간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고 털어놨다.

노인이 피자를 들고 오니 손님들은 놀라기 일쑤였다. 카를로스 밸디즈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고된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런 할아버지가 인상 깊었던 밸디즈는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가게라 일부러 시켜 먹었다. 배달원도 늘 할아버지로 지정했다." 고 밝혔다.

밸디즈는 할아버지가 배달을 올 때마다 함께 영상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피자 배달을 하면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걱정을 쏟아냈다. 밸디즈와 그의 5만 팔로워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십시일반 할아버지에게 팁을 모아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 1만2,069달러가 모였다.

지난 22일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밸디즈 집에 피자를 배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친구!" 라며 문을 열고 들어온 할아버지에게 밸디즈는 거액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팁' 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맙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며 눈물을 쏟았다.

밸디즈는 "할아버지의 미소는 모든 이의 마음을 훔쳤다." 면서 "친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례" 라며 함께 기뻐했다.

# "코로나 걸렸다"며 집 나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녀 집에

코로나19에 걸렸으니 찾지 말라던 유부남이 불륜녀 집에서 발각됐다.

▲ 사진=shutterstock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19일 인도 '리퍼블릭월드' 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비뭄바이 출신 28세 남성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아내를 버리고 불륜녀와 살다 덜미가 잡혔다.

남성은 지난 7월 24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목숨을 끊겠다." 며 아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종적을 감췄다.

아내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남편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거리에 버려진 남편의 자전거와 가방 등 소지품을 발견하고는 납치 등을 의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도시 전역의 코로나19 진료소를 수색하는 한편, 일대 보안 카메라도 샅샅이 뒤졌다.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에도 애를 먹었다.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나 싶었을 때쯤, 경찰은 극적으로 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수사 한 달여 만이었다.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은 자택에서 580㎞ 떨어진 마디아프라데시주 인도르 지방에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불륜녀와 살고 있었다.

현지언론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유부남이 불륜녀와 새 삶을 꿈꾸고 있었다." 며 "그의 불륜 사기극은 두 달 만에 끝이 났다." 고 전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쉴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쉴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